온두레공동체 ‘한마음’

전주시, 첫마중길 일대서 ‘공동체 나르샤 페스티벌’

할로윈데이 맞아 할로윈 이벤트 존 마련 큰 호응

나와 이웃, 도시를 바꾸기 위한 온두레공동체 활동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펼쳤다.

전주시와 전주시 공동체협의회, 전주도시혁신센터는 지난 27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18 온두레 공동체 나르샤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첫마중길 일대에는 4시간 동안 할로윈데이를 맞아 할로윈 변장 메이크업 체험과 할로윈 드레스 대여, 할로윈과 연계된 판매부스와 다양한 이벤트 존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버스킹 공연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 ‘노송FM’도 참여 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온두레 공동체 홍보를 위해 만든 ‘온두레 공동체 송’을 바탕으로 안무 UCC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는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 돼 올해 4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여개에 이르는 공동체가 함께 했다.

/송효철 기자

어르신을 돕는 고운 손길

가을비가 내리는 지난 26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는 어르신을 도와 언덕을 오르고 있다.

온두레공동체 육성… 전주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우리동네 문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

사회적경제지원단 신설 등 공동체 키워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
마을공동체로 동단위 등 마을만들기 진행
올해 11개 아파트 대상 아파트공동체 추진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를 위한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국내·외 도시들과 연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역화의 핵심인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시민들이 각자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국(局)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동체 육성사업을 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생산, 소비, 생활, 문화, 복지, 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사업과 활성화사업으로 나뉘는데, 먼저 교육사업으로는 공동체 의식 확산과 활동가 양성교육과 전문가 양성교육, 전문가 연계교육이 있으며 공동체현장 방문 컨설팅과 공동체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로 동단위, 마을단위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며, 소규모(창업)공동체는 동아리와 단체사업, 원도심공동체는 원도심 교육공동체사업과 원도심 주민주도마을계획 수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전주시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복지와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온두레 공동체를 259개 선정해 13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시작단계인 디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동체를 키우는 이음단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희망단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들 공동체들은 정기적 마을장터 개설과 마을텃밭 등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는 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각종 재능 기부활동으로 따뜻한 전주, 지속가능한 전주 만들기에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전국 공동체 한마당과 사회적경제박람회, 온두레 공동체 체육대회, 무료 시식·시음 행사, 무료봉사 활동, 플리마켓,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정신을 알려왔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전주를 방문한 카메룬 어린이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국제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더불어,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공동체사업과 원도심 마을계획수립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온두레공동체 중 ‘천사길 사람들’ 공동체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느루걸음’과 ‘동화나래 연구소’ 공동체는 ‘이그나이트 V-korea 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장려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이 공평한 경제활동과 모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3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전주형 지역 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가 이뤄낸 20년 돌아보기

전주자봉센터-한국사회복지학회, 중장기 비전 포럼 개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최원규)는 지난 26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전주지역 자원봉사 관련 관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자원봉사 중장기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99년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설립돼 내년 9월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전주시 자원봉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주시 자원봉사 제2도약을 위한 20주년 기념사업과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해 자원봉사 교육문화정책 포럼(위원장 최원규 교수)’을 구성.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주관하는 추계 학술대회에 특별 세션 자원봉사 분야로 참여하게 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원규 전북대 교수가 전주시 자원봉사 20년의 평가와 향후 20년의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 관장 이 자원봉사의 비전과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을 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자원봉사자는 “이번 포럼에 참가해 자원봉사 역사에 대해 알았으며, 향후 20년의 봉사활동을 준비한다는 것에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활동 하는 것이 매우 보람되고, 전주시가 전국 자원봉사 일등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의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20년의 전주시 자원봉사를 평가하는 자리이자 향후 20년의 전주시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시민이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내가 만약 연애·결혼하게 된다면?”

2030 발달장애인 대상 ‘두근 두근 웨딩데이’ 가상결혼식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임예정)는 최근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후원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근 두근 웨딩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2030 발달장애인 욕구해소를 위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 실행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가상 커플 5쌍의 가상결혼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5쌍은 지난 1년 동안 성교육과 데이트코칭 등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동성친구와 여가시간 보내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본인과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을 통해 나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상결혼식의 주례는 이환권 정다운교회 목사가 맡았으며, 솔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축가를 맡아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송효철 기자

금암1동 새만금 효도관광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선자)는 26일, 관내 어르신 100여명에게 새만금 일대 효도관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관광은 금암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동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후원했다.

특히, 금암1동 통우회, 새마을부녀회, 마을가꾸기 등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도우미를 자처,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데 적극 나섰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금암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색소폰 교실 회원들과 가수 등을 초청, 색소폰 연주와 노래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구었다.

/송효철 기자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래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알파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삿뽀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격 취득
응급처치 요원 지격증 취득
래프팅 가이드 지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격증 취득
현)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